

충남발전연구원 곽유신 사무처장 취임



곽유신(59·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씨가 7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곽 사무처장은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발전과 정책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사무처장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1980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도 감사담당관·관광과장·자치행정국장, 연기군 부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 美人명사전에 등재



충남발전연구원은 환경생태연구팀 정옥식 박사(37세, 전공-야생동물. 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09년판에 이름을 올렸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는 충발연구이 1995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 박사는 최근 "동북아시아 독수리 이동경로에 대한 연구(2007)", "한국 서해안의 붉은어깨도요와 꼬까도요 체내의 *Acanthoparyphium Tyosenense* 감염상(2007)", "큰부리바다오리의 국내 첫 관찰 보고(2007)" 등의 논문 발표를 통해 야생동물보호관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 왔다.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 박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2007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국조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으며, 1899년부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충발연, 2008년 제1차 연구자문회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7월 1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 및 연구원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0명과 함께 “2008년도 제1차 연구자문회의”를 가졌다.



주요 자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수행업적에 대한 평가

○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수요자와의 공동

동학습 및 협동연구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별 10명이상의 collaborator 확보,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선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기획연구, 고객의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coaching 등은 매우 바람직하고, 연구수요자 공동학습 및 협동 연구는: 국책 연구원도 도입해야 하는 연구모범임

○ 특히 도와 시·군 행정뿐만 아니라 도민을 연구원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함

○ 그러나 연구원 규모에 비하여 과제수가 너무 많고, 출연금 지원 등이 타시도 연구원 등에 비하여 낮아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둘째, 연구 질의 개선 방안

○ 연구 질은 「연구과제 선정→연구기획→연구수행→연구결과생산(보고서 작성)→연구결과의 전파와 활용」의 전반적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과제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지식 소그룹 등 공무원 집단이 연구개발 동아리 운영하면 과제 선정에 도움 가능

- 연구 질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함. 둘째 자체적 연구심의회를 내실화하고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연구결과와 생산과 전파 활용에 더욱 신경써야 함.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달 메커니즘, 전달 양식을 개발 활용하여야 함. 특히 본 보고서 외에 보다 간결하고 보다 단순한 요약 (청와대 17 포인트, A4 2매 이내) 자료 작성 역량 구축해야 함

셋째, 조직적 연구 역량의 강화 방안

- 조직적 연구역량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연구조직 및 지원체계의 개편이나 강화가 함께 하여야 함.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별 연구트랙 작성, 지원방안 마련하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위한 2-3년차 연구수행 로드맵 작성 노력 필요
-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전담인력이 30명 정도에 불과한데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세분되어 연구역량 발휘가 어렵게 되어 있음. 특히 전공별 팀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다양한 전공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함.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별폐 작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간 벽 허물기 가능한 연구조직 조정 필요
-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조직적 연구역량의 강화는 어떠한 연구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됨. 특히, 지식, 정보자료의 축적과 활용 증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넷째, 2009년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 방향과 내용

- 충남발전연구원은 시·도 연구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현상 및 실태조사와 분석 및 추세 전망연구에 치중해야 함. 예를 들면 농촌 정주체계의 변화와 전망과 같은 연구임
- 또한 시도연구원은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개발효과 및 추진 평가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면 지역발전과 함께 국가정책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수많은 국책사업이 지역적 연계와 협력 체계마련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 대안사업이라고 생각함
-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안과제에 치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변화

와 global trend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연구 필요. 예를 들면 기후협약, 에너지, 식량문제, 삶의 질, 여성과 감성시대 도래 등

- 현재의 연구는 대부분 시책과 사업구상과 계획에 대한 연구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 디자인 등 지역특화 연구 및 집행과정의 performance consulting 연구에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도 및 주요 연구과제 제시(안)
 - 황길식 위원 : 지역개발집행지원 (performance consulting) 연구
 - 김경석 위원 : 충남 동서연계와 균형발전방안, 충남물류기능 활성화와 대응계획 연구
 - 차미숙 위원 : 지역현장 실태와 추세전망 연구, 국책사업의 지역적 추진체계 및 지역화 연구,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연구
 - 김선배 위원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핵심사업 및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연구,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및 3개 시·도 협력사업 연구
 - 박동호 위원 : 지역 브랜드 개발 및 도시혁신과 지역혁신 위한 디자인 연구
 - 박종관 위원 :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연구, 정부통합평가 대비 연구
 - 임정수 위원 : 농촌공간구조변화추이와 전망, 농촌지역경제연구, 에너지 분야 연구
 - 박헌주 위원 :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trend와 지역대응 연구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원 환경에 적용된 개선과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다음 연구자문회의에 연구원 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충남도정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충남도는 7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환경,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와 관련한 '충남도정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산업경제 분야 주제 발표를 한 박종찬 고려대교수는 "지난 2년간 충남은 전국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지역 내 균형발전과 고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도내 서남부권을 육성하는 등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비롯해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경제 클러스터 구축, 의료개발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과 같은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 최봉문 목원대학교수는 "현재 충남이 직면한 도시지역개발의 주요 과제는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유치 문제, '지역 내 인구 및 산업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인적자원 수급 및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등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 기업도시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 주제발표자인 최진하 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장은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는 등 바람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주체를 정하는 한편 도시·환경·에너지 통합형으로 충남도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 분야의 주제 발표에 나선 안성혜 상명대학교수는 "충남의 7대 역점시책 가운데 하나가 '가치가 살아 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인 만큼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또한 생명력 있는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민선4기 후반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가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료 : 연합뉴스 7월 28일자



충남발전研, 학술지 ‘충청지역연구’ 펴낸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최근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기 위해 학술지 “충청지역연구”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될 이번 학술지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각 분야별 논문을 접수, 심사를 통해 뽑힌 우수 논문에 대해 편당 100만원의 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논문 모집은 10월 말까지이며, 학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웅 원장은 “학술지 발간은 연구원의 얼굴이자 우리 지역의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연구에 대한 대표 학술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발전研, 한밭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8월 28일 오전 11시 한밭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설동호)와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충발연과 한밭대간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연구원 위촉 및 교류,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공동 활용,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기술자문 및 지역연구의 공동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 가능한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연구역량 강화로 충청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밭대학교 이상호(도시공학) 교수의 해외 도시계획 관련 주제의 특강도 함께 가져 이번 조인식의 의미를 더했다.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 총회 및 세미나 가져



충청남도연구원협의회(회장 김용웅, 이하 협의회)는 9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출연 연구기관장을 비롯한 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충청남도연구원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해 8월 가신 충청남도 출연 연구기관 간 학술·연구교류협약에 의해 구성된 이 협의회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등 총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각 기관별 연구과제 공유, 공동 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각 연구기관별 운영성과 및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웅 협의회장은 “지역연구기관의 경쟁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간 공동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의 질 개선, 연구 예산 확보 방안, 노정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자”고 제안했다.